

가정과 교사 교육과 연수

성 화 경

고려대학교 교수

I. 서 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교육과정, 교과서가 훌륭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과 의지, 태도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

교사란 가르치는 일을 業으로 삼는 전문 직업인이다. 따라서 다른 직업과 같이 생計의 수단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헌하는 방법이며 自我실현의 수단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과 달리 교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장을 돕고,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그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적 의의를 다르게 두어 왔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강하고 절대적이지만 그 형태가 너무 외형적이어서 학벌 위주가 되고 있으며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는 뒷전이어서 대학 입학 자체가 교육의 목표인양 되고 있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수능 과목에만 집중되고 여타 과목은 등한시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어 생활 교양 교육을 교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가정 과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다고 믿는다.

가정 과목은 시간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국민 기본 공통 교과에 속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 모든 학생에게 필수과목으로 지도해야 하는 중요한 교과이다.

현재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신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각론이 개발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교육 과정을 정착시키고 유용한 교과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가정과 교사 양성 교육과 연수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자질과 역할, 가정과 교사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가정과 교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한다. 그리고 교사 연수 부분도 간략하게 고찰해 보겠다.

II. 가정과 교사의 자질과 역할

교육은 교수·학습 체제와 생활지도 체제가 중핵을 이루므로 교사의 역할은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학생의 생활 지도자, 인격 형성 조력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교과 지도에서 교사는 자기가 맡은 교과를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 내용뿐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알고, 가르치는 방법도 익숙하여야 한다. 학생지도는 학생들의 개인적 생활문제, 진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업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 지능이 모자라서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하면 현저히 차이나는 아이, 열등감, 우월감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갈등이 있는 아이 등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과목은 교과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학생 생활 지도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교사는 뚜렷한 교직원, 교육관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학생들은 가족이나 사회와 접할 시간, 기

회가 아주 부족하므로 가정과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업 문제 보다 생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실은 학업, 진학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파생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 탈선에 관련된 문제가 매일 보도된다. 마약, 미혼모, 폭력, 자살, 가출, 무기력증 등...

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가 혼연 일체가 되어야 이를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중에서도 교사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향상된 방향으로 실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정과 교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해서 청소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이나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학교수업, 보충수업, 과외공부로 이어지는 생활이 아주 수동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므로 가정과목에서는 실습 등 교육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인간의 존엄성, 가정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인류의 생존과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 교사는 인간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가정과 교사 교육의 문제점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국 21개 가정교육과에서 매년 651명씩 배출되고, 일반대학교 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방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하는 사람을 합치면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된다.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 교육과 교수, 학생은 모두 방향성을 잃고 있다. 흔히 교육 문제를 논할 때 교사의 자질문제를 들곤 하는데 교사의 자질의 문제는 교사 자격증의 남발과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고,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니 그 자격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대학교 직과정 이수자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적어 교과 지도에 부족하고 자격증을 가볍게 생각하게 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갑자기 축소된 시간 수에 따라 교육과정도 위축되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육과 입학생들은 師大에 진학하고도 진로를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과목이나 교과교육과목은 학점 채우기 위한 선택과목으로 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의 신 교과과정은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전공은 최소화해서 교사로 취업하는 경우 가볍게 2, 3개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어 앞으로 배출되는 학생들의 질 저하는 더욱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까지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가정과목에 대한 기초는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대학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IV. 가정과 교사 교육의 방향

가정과 교육이 교육과정의 축소, 교사 수요·공급의 불균형, 사회의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 입시 위주 교육, 시설의 부족, 교사의 무기력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가정학 전공자나 가정과 교사 모두가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교육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1. 가정과 교사의 수요·공급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사 교육이 되게 한다.

교사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성은 광복 이후 계속되어 온 것이나, 공급과잉을 인식하면서도 사범대학의 수는 증대되어 왔다. 교원 양성기관은 그 전문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질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의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적으로 증가하며, 교육과정 축소와 함께 남녀 공수 과목으로 변경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가정과목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남자 학교에 가정 과목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2. 가정과 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육학자는 교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과 전문가는 교육이론에 관심이 없으며, 전공과목, 교직 과목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어 수강하는 학생이 통합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가정교육과의 경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교육전공 교수요원의 부족은 생각해져서 가정 교육과 요람(한국가정교육학회, 1994)에 보면 이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 전공 교수가 두세 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사 교육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교육과정을 교과내용과 교과교육을 합쳐 지도함으로써 전문직을 수행하는 교사의 태도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교육과목은 가정과 교육론, 가정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가정과 교육과정, 가정과 학습이론, 가정과 교육평가 등을 들 수 있다.

3. 대학강의에서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법을 경험하게 한다.

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지식 형성 과정에 따라서 학생에게도 교육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수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수법에 연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의 대단위 강의실에 이른 중심 강의만으로 교육받은 교사가 어떻게 토론식 수업을 이끌며 학생들에게 소위 열린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대학의 교육 환경 역시 열악하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많고, 강의 담당 시간도 많으며 강의실마다 교육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수 자료도 모두 교수 자신이 개발해야 하므로 대학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는 동안 이론식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법이 자료를 읽고 발표하기, 학생 상호간 그 내용에 대한 토론하기, 사회조사한 것 발표하기, 문제성 찾고 대안 제시하기, 실험 실습과 연결시켜 결론 도출하기 등 다양하게 학생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교수의 업적 평가가 논문, 저서에 집중되고 있어 강의는 교수 업무 중에서 핵심 밖의 일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4. 가정과목을 남녀 공수과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전환하게 한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 구분이 확연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가정과목을 남학생에게 이수하게 하는 데에 익숙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생활기능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모세대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다. 교사 자신은 어느 면에서는 남학생에게 관대한 평가를 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런 남녀가 다르다는 사고 방식을 교사 자신이 바꾸고, 학교나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5. 가정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사회에 실천하려는 사명감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

요즘 가족들이 가정 밖의 생활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게 되면서 가족간의 유대 관계가 약해지고 가정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 부부간의 문제, 청소년 문제,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되므로 가정과 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가족을 가정 내로 끌어들이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의 흐름이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학생들의 생활 기능 향상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 의식주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과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과 내용을 단순한 지식으로 지도하지 말고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실습을 통한 생활 기능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이 올바르게 다양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V. 가정과 교사 연수

연수(현직 교육)란 일반적으로 그 직종에 종사는

사람에게 그 직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 직업 종사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사의 현직 교육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사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직 교육의 성격은 교원의 근무성적에 포함되며 승진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현직교육은 1940년대 강습회, 연구회, 시찰 등의 형태로 시작했고 교사의 학력 보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후 승급을 위한 연수, 행정직 담당자를 위한 연수(교감, 교장), 자격증 이외의 다른 교과 자격을 얻기 위한 연수, 교육대학원, 해외 연수 등 다양해지고 있다.

연수는 양성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며 교사 각자는 능동적으로 자신과 학생 그리고 교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연수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해 보겠다.

1. 연수가 교사 양성 교육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강의 담당자의 편협한 내용 취급으로 효과가 적다. 이론이나 학문 중심이 아닌 현장 교육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를 같은 학급으로 편성하는 것도 내용이나 수준면에서 문제가 된다.

2. 남녀 공수과목으로 완전히 전환된 현재 연수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평소의 의식의 변화이므로 이를 위해서 연수 기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립, 공립 학교별로 기회가 제한되므로 기회 확대를 하고, 방학이 아닌 한 학기 휴직하는 방법으로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교사는 방학때 심

신의 여유를 가지고 다음 학기 준비를 해야하므로 방학을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4. 교원연수과정을 교육대학원과 연계시켜 학점을 인정하여 자발적 의욕을 고취하도록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복되는 단순한 생활 속에서 타성에 젖기 쉽다. 따라서 교사에게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해 교육대학원은 등록금 보조, 수업시간 편의 등으로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교과 내용과 연계성이 있으며 어느면에서는 가정교과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 즉 성교육, 환경분야 등의 연수를 가정과 교사에게 기회를 주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6. 학회활동, 동호인서클활동 등에 참여해서 사회, 학문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일종의 연수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환국, 교사교육론, 교학연구사, 1995.
 김숙희,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학의 영역, 대한가정학회추계학술대회, 1990.
 김종철 외 6인, 교사론, 교육과학사, 1984.
 박명희, 가정과 교사 양성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학술대회, 1995.
 박승재 외, 중등 교원 양성 교육 과정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1996.12.
 중앙대학교, 대학의 교육개혁:문제와 전망,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6.
 중앙대학교, 현대 사회와 가정학, 가정문화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1990.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전국가정교육과요람, 1994.